

『註解千字文』의 한문주 고찰*

오미영** · 김문정***

- I. 들어가는 말
 - II. 한국의 천자문 학습과 간행
 - III. 『註解千字文』의 한문주와 『千字文釋義』 비교
 - IV. 맺는 말
-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천자문은 중국 梁나라 武帝가 왕자들에게 한자와 서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흥사(周興嗣, ?-521)에게 명하여 만든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1000개의 한자로 만들어진 한자학습용책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것이 전면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천자문은 1000개의 한자가 韻을 밟고 있는 4자 250구의 韻文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250구의 내용은 천지인의 도, 인간의 도리, 중국의 역사, 통치 등 다양하며 古事나 古典에 바탕을 둔 것이 많다. 이러한 내용을 4개의 한자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4개의 한자만으로는 해당 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중국에서는 천자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서인 주석서가 제작되었다. 먼저 6세기 후반 이섬(李暹, 생물년미상)에 의해 『註千字文』(이하, 주천자문)이라는 주석서가 만들어졌고, 이후 청나라 때에는 『千字文釋義』(汪嘯尹纂輯·孫呂吉參注. 이하, 석의)가 제작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한자 학습서로 천자문을 널리 사용하였다.¹⁾ 그러나

*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에 걸쳐 필자들과 정문호(현재 일본 北海道大學 문학연구과 박사과정 연구생)이 한국과 일본의 천자문 텍스트를 가지고 매주 1회 천자문 공부모임을 진행하였는데 본고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과의 일부분이다.

** 숭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일본어학(일본어사) 전공.

천자문의 수용, 특히 텍스트 및 학습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²⁾ 한국의 경우는 천자문 원문만을 들고 그 아래에 훈 한 개와 음 한 개를 한글로 적어 넣은 형식의 텍스트가 일반적이며, 학습은 텍스트에 적힌 훈과 음을 암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주석을 동반한 주석서의 형태, 즉 대문에는 천자문 250구를 적고 그 아래에 세주로 이섬의 주석을 적어 넣은 형태의 텍스트를 사용하였다. 또한 텍스트에 적힌 한문 위에 훈점을 달아 문젠요미(文選讀み)³⁾라는 형식의 일본어 훈독문을 암송하는 방식으로 천자문을 학습하였다. 현존하는 일본의 천자문 텍스트는 대부분 앞서 소개한 『註千字文』이다.

오미영(2015d)의 연구는 천자문 주석서를 바탕으로 할 때 천자문 250구의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주천자문과 석의를 비교하여 보이고, 석봉천자문의 훈이 당시 조선에서 널리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석의의 주석 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고찰하였다. 또한 오미영(2016a)를 통해서도 일본 동경대학교 국어연구실에 소장되어 있는 훈점본 『註千字文』의 훈점이 이섬의 주석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이 연구들은 먼저 일본의 한문훈독이 텍스트에 실려 있는 주석서의 내용에 기반을 둔다는 오미영(2001) 이후의 관점을 검토한 것이다. 더불어 오미영(2015c)를 통해 제시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석봉천자문의 훈과 주천자문의 훈독을 내용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즉 훈점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한문훈독문은 일종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문훈독의 결과물로서의 한문훈독문이 텍스트에 적힌 주석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⁴⁾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註解千字文』(이하, 주해천자문)의 한문주와 석의의 주석을 비교하여 동일한지, 혹은 어느 정도의 차이를

***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과 석사과정 졸업. 국어학(국어사) 전공.

- 1)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더 널리 사용되었다.
- 2) 천자문 텍스트에 관한 한일비교는 오미영(2014b)를 참조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천자문 학습과 관련해서는 오미영(2014a) 이래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 3) 문젠요미 일반에 대해서는 築島裕(1963:261-262)를 참조할 수 있고 천자문의 문젠요미에 대해서는 오미영(2014a:151-153)을 참조할 수 있다.
- 4) 오미영(2001)의 관점과 오미영(2015c)의 방법론은, 한문훈독문의 성격을 고찰하는 데 있어 상호보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주해천자문은 천자문 해당 구에 대해 한문주를 싣고 각 한자에 대해 한글로 어의를 적은 후 이어서 의미가 같은 한자를 싣고 있다. 주해천자문의 한문주는 주천자문이나 석의에 비해 대단히 간략하여 전체 내용을 다 담아내기에는 양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되지만 석의의 내용과 대립되는 곳은 없는지 고찰함으로써 주해천자문의 한문주의 성격의 일단이나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이후 주해천자문에 대한 연구, 예를 들어 한문주와 한글 어의의 관계, 동의한자에 대한 고찰 등으로 이어가는 연구의 출발점에 위치하는 것이다.

주해천자문의 한문주와 석의의 주석을 비교하기에 앞서, 주해천자문의 간행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천자문 학습과 간행에 대하여 문헌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기술함으로써 한국의 천자문 학습 및 간행사에서 주해천자문이 지니는 위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의 천자문 학습과 간행⁵⁾

천자문이 한국에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古事記』에 백제의 왕인(王仁, 생몰년미상)이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고 『日本書紀』에도 동일한 내용이 應神天皇 16년(286)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삼국시대에는 천자문이 전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

천자문 학습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高麗史 권125 列傳 권38에 등장하는 고려 충목왕(忠穆王, 1337-1348)이 천자문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다.

時王習千字文，安震曰，要詳音義。淑蒙曰，殿下但習音，不尋其義，殿下雖不識字，於臣何傷，然恐不可。王曰，師傅比來不講其義，故不習耳。淑蒙曰，殿下不習而反

5) 한국의 천자문 수용에 관해서는 오미영(2014b:409-412)를 통해 간략하게 기술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그에 부가하여 고려시대 이후 기록에 나타나는 천자문의 학습과 간행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 시대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므로 피할 수 없는 중복이 발생함을 밝혀둔다.

6) 『古事記·上代歌謠』(日本文學全集1), 小學館, 1987, p.256(초판 1973). 『日本書紀 上』(日本古典文學大系67), 岩波書店, 1967, p.372.

ष臣, 非臣不講也(당시 왕이 천자문을 배우는데 안진이 음과 뜻을 다 알아야 한다고 주의를 주자 전숙몽은, “전하께서는 글자의 음만 익히고 뜻을 알려고 하지 않으시니 전하께서 비록 글자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마도 그것은 옳지 않은 일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왕이 “사부가 요즘 글자의 뜻을 가르치지 않는 바람에 내가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변명하자 전숙몽은 “전하께서 공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를 나무라시지만 사실은 제가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⁷⁾

위의 기록은 고려시대의 왕실에서 천자문이 학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음’과 ‘뜻’에 관한 왕과 전숙몽의 대화는 천자문의 학습 방법과 관련한 내용으로 주목할 만하다.

조선시대에는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도 널리 천자문의 학습을 하게 된다. 왕실의 천문 학습에 관해 조선왕조실록 중종 12년(1517) 4월 13일 기사에 원자가 『천자문』 학습을 마치고 『類合』을 배운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元子於初十日入謁, 留大妃殿, 是日, 還出寓河城尉家. 氣質沈重, 言不輕發, 千字·類合, 皆通習之. 上執冊而問之, 應誦不錯一字, 上嘉嘆不已, 仍厚賞乳媪(원자가 초열흘날 입알하고 대비전에 머물다가 이날 하성위 집에 있으려고 도로 나가는데, 기질이 침중하여 경솔하게 말을 하지 않고 『千字文』과 『類合』을 모두 환하게 익혔었다. 임금이 책을 들고 묻자 따라 외되 한 자도 틀리지 않으니, 임금이 가상히 여겨 감탄하기를 마지않았고, 이어 유은에게 후한 상을 주었다.)⁸⁾

이와 같이 조선 왕실에서 천자문이 학습되었다는 기록은 중종실록 외에 명종·숙종·순조실록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종 22년(1527년)에 완성된 최세진(崔世珍, 1473?-1542)의 『訓蒙字會』에 ‘臣竊見世之教童幼學書之家, 必先千字, 次及類合然後始讀諸書矣(신이 가만히 세상에서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분들을 보옵건대, 반드시

7) 국역고려사(권125 열전38, 간신, 신예 부 전숙몽), 네이버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72318&categoryId=49632&cid=49632>)

8) 국역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종합DB.

『천자문』을 먼저 가르치고 『類合』을 가르친 다음에야 여러 책을 읽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를 통해 천자문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초학서로서 학습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늦어도 14세기에는 천자문이 한자 입문서로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국가에서 천자문을 간행한 기록으로 가장 이른 것은 세종 7년(1425) 11월 2일의 '慶尙道監司河演進入學圖說·易·詩·春秋·中庸·大學·論語·孝行錄·篆書千字文·大字千字文, 分賜于成均·校書館·四部學堂(경상도 감사 하연이 『入學圖說』, 『易』, 『詩』, 『春秋』, 『中庸』, 『大學』, 『論語』, 『孝行錄』, 『篆書千字文』, 『大字千字文』 등을 올렸으므로 성균관, 교서관, 사부학당에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다.⁹⁾

또한 중종 24년(1529) 7월 3일 기사를 보면 '傳于政院曰, 初讀所用千字類, 合懸吐小學, 各二十件, 卽令印出入內. 若於國用不足, 則數多印出, 藏於文武樓可也(정원에 전교하였다. 초학이 읽는 『천자문』과 토가 달린 『소학』을 각각 20건씩 즉시 인출하여 들이게 하라. 나라에서 사용함에 있어 부족하다면 많이 찍어서 문무루에 쌓아두게 하라.)'¹⁰⁾ 하였는데, 이 기사는 천자문의 간행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는 천자문에 토가 달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¹¹⁾

국어학 연구에서 관심 있게 다루어지는 천자문 자료는 한자마다 한글로 독음과 훈이 달려있는 것들이다. '하늘 천, 따 지, 검을 현, 누를 황...'과 같이 언제부터 천자문을 훈과 음을 결합하여 읊어 외웠는지, 언제부터 훈과 음이 달린 천자문이 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남아있는 자료로만 보자면 1자에 1훈이 달린 천자문 자료는 16세기 중엽 이후에 간행되었다.

9) 국역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종합DB.

안미경(2005:33)은, 이를 통해 중앙에서 경상도 감영에 명하여 천자문 등의 서적을 개관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이 천자문 간행과 관련한 가장 이른 기록이라고 하였다.

10) 국역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종합DB.

11) 안미경(2005:35)는, 이 기록을 통해 중종 때 『小學』에는 이미 釋音을 달았지만 『천자문』과 『유합』은 아직 釋音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는 이 시기 『천자문』이 講讀用보다는 習字用으로 쓰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한자 한 글자에 한글로 하나의 훈을 단 천자문은 크게 광주천자문 계통과 석봉천자문 계통으로 나뉜다. 광주천자문은 전라도 광주에서 간행된 것으로 일본 東京大學 중앙도서관 小倉進平 舊藏本이 있다. 이 책은 萬曆 3년(1575, 선조 8년) 광주에서 간행되었다는 刊記가 있으며 현존하는 最古의 천자문 간본이다. 간기가 없는 것으로는 일본 大東急記念文庫 소장본이 있다. 두 책 모두 16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¹²⁾

석봉천자문은 한호가 선조의 명을 받아 글을 써서 간행한 것으로 중간, 번각이 되어 많은 이본이 존재한다. 석봉천자문은 내사기가 있는 김민영 소장본(박찬성 구장본. 이하, 내사본)¹³⁾과 일본 公文書館 內閣文庫 소장본(이하, 內閣文庫本) 등이 있다. 내사본은 석봉천자문의 원간본으로서 간기는 萬曆 11년(1583, 선조 16년)이다. 내사기에 ‘萬曆十一年七月日內賜司諫院大司諫朴承任, 千字文一件, 命除謝恩, 左副承旨, 臣某手決’와 같이 이 책을 입수하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어서, 1583년 선조 16년에 당시 부사과였던 한석봉이 왕명을 받들어 천자문을 써 올리고 이것을 木版本으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내사본이 1981년 공개되기 전까지 內閣文庫本을 석봉천자문의 원간본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內閣文庫本을 원간본의 수정본으로 보고 있다. 內閣文庫本의 간기는 萬曆 11년으로 내사본과 같으나 한글석음 등 차이가 나는 곳이 있다. 손희하(2011)는 석봉천자문을 수집하여 16종¹⁴⁾으로 정리하였다.

광주천자문과 석봉천자문 이후, 하나의 한자에 하나의 훈과 음이 달린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난 천자문이 등장한다. 주해천자문이 그것인데, 하나의 한자에 여러 개의 훈과 음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자 1구로 구성된 250구의 의미를 한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12) 이기문(1981:5-11)

13) 이 책의 소장 및 영인과 관련한 자세한 것은 손희하(2011:189)를 참조할 수 있다.

14) 내사본(1583), 일본 內閣文庫 가본(1583)과 나본(1583), 羅孫本(간년 불명), 御賜本(간년 불명), 庚寅夏重補本 가본(1650)과 나본(1650), 庚寅重補本 가본(1650)과 나본(1650), 일본 延寶3년 복각본(1675), 幸未夏校書館重刊本(1691), 幸未夏校書館重刊本 復刻本(18세기), 木版本(간년 불명), 戊子統營開刊本(1708), 甲戌重刊本(甲戌年), 陟瞻臺藏板(1928. 甲戌重刊本の 복각본)이다.

선조 38년(1605) 11월 3일에 ‘上曰, 雖如千字, 釋之則好矣(上이 『천자문』 같은 것도 해석하면 좋겠다.)’는 기사가 있다.¹⁵⁾ 안미경(2005)는 여기서의 ‘해석하다’라는 것이 註解인지 釋音을 다는 것을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후자는 이미 1575년 광주에서 간인된 천자문이 있으므로 구태여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주해천자문의 간행과 이어지는 기사로 파악하였다.¹⁶⁾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숙종 17년(1691) 윤7월 25일 기사에 보면 ‘上親製千字序文, 下春坊. 春坊請刊出弁卷, 待東宮開筵, 以此文進講, 許之(임금이 친히千字序文을 春坊에 내렸는데, 춘방에서 권두에 붙여서 찍어내어 동궁에서 서연을 열 때에 이 글을 진강하겠다고 청하니 윤허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숙종대왕 행장 신미년조에도 실려 있는 ‘親製千字文序, 使世子, 以此進講(친히 『천자문』의 서문을 짓고 세자에게 이것으로 진강하게 하였다.)’이라는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문에서, 천자문을 배움에 있어 각 한자에 달려있는 하나의 훈만을 아는 데 그치지 말고 그 한자를 바탕으로 문맥에 따라 유추 확장하여 한자가 지닌 더 많은 의미를 알도록 하라고 하였다.¹⁷⁾ 천자문에 대한 숙종의 이와 같은 시각과 노력은 영조 때 이르러 주해천자문을 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작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의 영조 27년(1751년) 8월 28일 기사에서는 ‘象漢曰, 先朝辛未秋, 爲景廟讀習, 命刻千字矣 … 殿下宜繼述先朝美規, 命刊千字文好矣(상한이 이르기를, 선조께서 신미년 가을에 경묘(경종)의 독습을 위하여 천자문을 간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 전하께서는 선대조의 의범을 이어 『천자문』의 간행을 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¹⁸⁾ 라고 하여 홍상한(洪象漢, 1701-1769)이 숙종의 뜻을 받들어 영조에게 천자문을 간행할 것을 청하고, 영조가 이를 윤허하는 기록이 보인다. 그 결과 이듬해인 영조 28년에 주해천자문이 간행되었다.

주해천자문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原刊本과 홍윤표 소장본인 重刊本이 대표적이다.¹⁹⁾ 원간본은 영조 28年(1752)에 홍

15) 국역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 종합DB.

16) 안미경(2005:35)

17) 박병철(2016:144)

18)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DB.

19) 최범훈(1983:22-24)은 初刊本, 增註本, 新版本, 1905년본, 1915년본의 5종으로

성원(洪聖源, 1699-?)의 글씨로 南漢 開元寺²⁰⁾에서 간행된 것이다.²¹⁾ 중간본은 순조 4年(1804)에 홍태운(洪泰運, 생몰년미상)의 글씨로 광통방에서 간행되었다.²²⁾ 책의 말미에 ‘篆與字音清濁及小註竝新增’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볼 때, 원간본에 篆書體 글씨와 清濁音 및 小註를 새로 덧붙여 중간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고종 5年(1886)에 간행된 것이 있는데, 원간본 및 중간본과는 板式이 전혀 다르다. 이후 1905년과 1915년에 重刊된다.²³⁾

이상으로 주해천자문에 이르는 한국의 천자문 학습과 간행에 대해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Ⅲ. 『註解千字文』의 한문주와 『千字文釋義』 비교

주해천자문은 <사진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한자에 대한 훈과 음 세트가 여러 개 기입되어 있다. 해당 구에서 해당 한자가 쓰인 의미가 반영된 훈을 첫 번째에 놓음으로써 구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에 대한 내용 설명을 위해 간략하게나마 한문주가 달려 있다. 이처럼 주해천자문은, 초학자의 한자 학습을 위한 1자 1훈의 광주천자문이나 석봉천자문과 같은 기존의 천자문과는 달리 천자문을 4자 1구로서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천자문 텍스트와는 차별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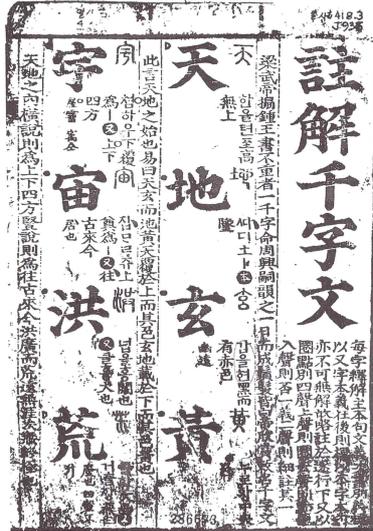
정리하였다.

20) 경기도 광주 남한산성 개원사.

21) 간기의 내용은 ‘崇禎百二十五年壬申冬, 註解于龜谿精舍, 上護軍南陽洪聖源書, 南漢開元寺板’이다.

22) 간기의 내용은 ‘崇禎百七十七年甲子秋, 京城廣通坊新刊’이다.

23) 주해천자문의 판본에 대한 이 단락의 내용은 안병희(1982:145-161), 최범훈(1983:21-24), 林東錫(2009:281-304)를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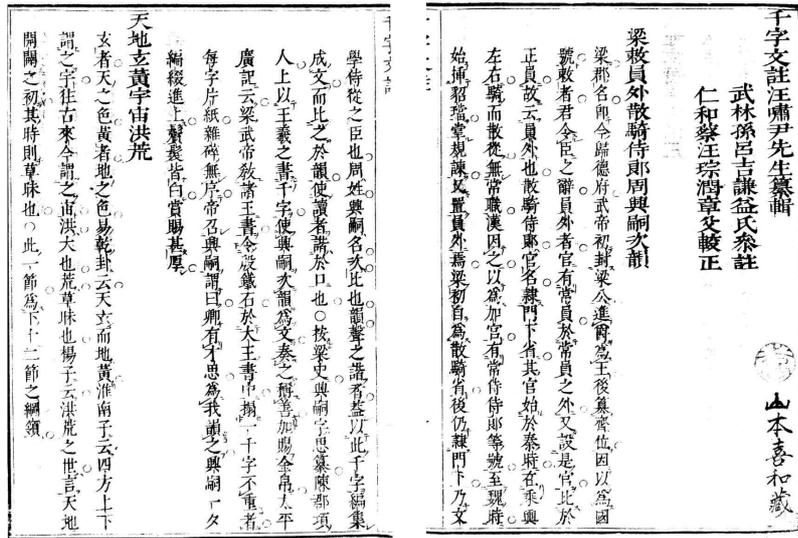


<사진1> 주해천자문²⁴⁾ 1장

석의는 청나라 말기까지 널리 유포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본에도 전래되어 널리 읽혔는데 明治시대 이후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널리 활용되었다.²⁵⁾ 지금까지 석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규장각 소장본, 호주국립도서관본, 한국교회사연구소본을 확인하였다. 석의도 판본에 따라 천자문 원문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주석의 한문 문장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규장각 소장본은 호주국립도서관에 사진으로 공개하고 있는 판본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보이나 마이크로필름의 상태가 깨끗하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본은 보관상태가 좋았으나 영인본이 없어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古古5-03-18)을 사용하였다.

24) 동양학연구소(2008), 『千字文(동양학총서3)』, 단국대학교출판부(초판1973). 홍윤표 소장 重刊本の 영인.

25) 오미영(2015b:243)



<사진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천자문석의의 서와 1장 모두

주해천자문의 한문주와 석의의 주석내용을 비교한 결과, 주석 내용에 차이를 보이는 구는 250구 중 모두 13예가 발견되었다.²⁶⁾

아래 (45)구 <罔談彼短>을 보자. 석의와 주해천자문 모두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로 번역할 수 있는 구이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 석의는 ‘남이 오상에 잘못이 있으면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 그러나 주해천자문의 한문주는 ‘군자는 스스로를 닦기에 급하므로 남의 장점과 단점을 점검할 겨를이 없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45) 罔談彼短

⇒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석의> 罔者戒之之辭, 談言也, 彼者對己而言, 短即過也…言人於五常而有過, 則不誣之(망은 경계하는 말이다. 담은 말한다 뜻이다. 피는 나를 상대하여 말

26) 이하의 고찰 내용은 김문정(2015:19-35)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나 해당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후 기술하였음을 밝혀둔다.

한 것이다. 단은 즉 잘못이다. … 그 뜻은 남이 오상에 잘못이 있으면 비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해> 君子急於自修, 故不暇點檢人之長短也, 孟子曰, 言人之不善, 其如後患何, 所當體念(군자는 스스로를 닦기에 급하므로 남의 장점과 단점을 점검할 겨를이 없다. 맹자 (이루편)에 이르기를, “남의 착하지 않음을 말하다가 그 후환을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157)구 <鴈門紫塞>를 보자. 이 구에 등장하는 ‘안문’과 ‘자새’는 모두 고유명사인데, 석의에서는 각각 관문의 이름[關名]과 진시황의 명으로 쌓은 만리장성[長城]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이에 비해 주해천자문의 한문주에서는 각각 고을이름[郡名], 지명[地名]이라고 파악하여 양자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157) 鴈門紫塞

⇒ 안문과 자새

<석의> 鴈門關名…紫塞卽長城也, 秦始皇築長城, 西起臨洮, 東至朝鮮, 其長萬里, 土色皆紫, 故稱紫塞(안문은 관문의 이름이다. … 자새는 바로 장성이니 진나라시황이 쌓았는데 서쪽으로 임조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조선까지 이르러 그 길이가 만리이고 흙빛이 모두 자주색이므로 자새라고 일컬었다.)

<주해> 鴈門郡名, 在并州, 春雁北歸踰此, 故名, 紫塞地名, 秦築長城, 土色皆紫(안문은 고을이름이다. 병주에 있었는데 봄에 기러기가 북쪽으로 돌아갈 때에 이곳을 넘어가므로 이렇게 이름붙인 것이다. 자새는 지명이다. 진나라가 이곳에 장성을 쌓았는데 흙빛이 모두 자주색이었다.)

위의 두 구의 경우 우리말로 해석, 혹은 번역을 해도 두 주석서의 내용 차이가 번역한 우리말 문장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위의 두 구를 포함하여 6예가 있다. 위의 2예를 제외한 나머지 4예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8) 四大五常

⇒ 사대와 오상

<석의> 四大地水火風也…五常仁義禮智信也

<주해> 四大天地君親, 五常仁義智禮信, 人非四大無以生, 非五常無以成, 是乃人之所以爲人也

(160) 鉅野洞庭

⇒ 거야와 동정

<석의> 鉅野澤名…今已涸, 洞庭湖名

<주해> 鉅野郡在泰山之東, 洞庭湖在岳州大江之南, 彭蠡之西

(161) 曠遠綿邈

⇒ 넓고 아득하게 멀다.

<석의> 曠濶也, 綿邈遠貌

<주해> 上文所列山川, 皆空曠而遙遠也

(237) 年矢每催

⇒ 세월은 늘 (사람을) 재촉하고

<석의> 年歲也, 矢漏矢也, 漢書云, 孔壺爲漏, 浮箭爲刻, 每頻也, 催促也

<주해> 歲色如箭, 每相催促也

그러나 다음에 볼 예들은 앞의 예들과는 사정이 다르다. 즉 주석 내용에 따라 해당 천자문 구의 우리말 번역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이다.

먼저 (162)구 <巖岵杳冥>의 예를 보자. ‘巖岵’는 석의의 주석에 따르면 석굴로 파악할 수 있고, 주해천자문에 따르면 산봉우리로 파악된다. 또한 ‘杳冥’에 대해 주해천자문은 ‘杳冥水之淵深而不可測也’라고 하여 물에 대한 형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석의가 ‘杳冥’의 대상을 ‘巖岵’로 보아서 ‘암수는 아득하고 어둡다’라고 번역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주해천자문의 한문주를 바탕으로 번역하면 ‘바위와 봉우리가 높고 물이 아득하다’와 같이 번역될 것이다.

(162) 巖岵杳冥

<석의> 石窟曰岩, 山穴曰岵, 杳深也, 冥昏暗也(석굴을 암이라고 한다. 산에 난 구멍을 수라고 한다. 묘은 깊다는 뜻이다. 명은 어둡다는 뜻이다.)

→ 암수[석굴]은 아득하고 어둡다.

<주해> 巖岵山之岵嶮而不可登, 杳冥水之淵深而不可測也(암수는 산이 높아서 오를 수 없는 것이고, 묘명은 물이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 바위와 산봉우리가 높고 물이 아득하다.

다음 (212)구 <籃筍象床>에서는 한자가 가리키는 사물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212) 籃筍象床

<석의> 籃染青之草, 筍竹萌也, 書顧命云, 敷重筍席, 蓋以蒻竹爲席也, 象獸名, 其牙可以飾器, 牀說文云, 身之安也, 釋名云, 人所坐臥曰牀(남은 청색을 물들이는 쪽풀이다. 순은 대나무 싹이다. 서경 고명편에 이르기를, “겹 대나무 자리를 편다.”고 하였으니 약죽[어린 대나무]으로 자리를 만든 것이다. 상은 짐승 이름인데 그 어금니가 장식용 그릇을 만들 수 있다. 상은 설문에 이르기를, “몸을 편안히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석명에 이르기를, “사람이 앉았다 누웠다 하는 것을 상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 대나무 자리와 상아로 꾸민 침상.

<주해> 藍恐當作籃, 籃筍籠竹輿也, 象牀程第, 間以象骨飾之者(남순은 대나무를 엮어 가마를 만든 것이다. 상상은 정자[안석자리]이니 그 사이를 코끼리뼈로 꾸민 것이다.)

→대나무 수레와 상아로 꾸민 자리.

석의에서는 ‘筍’을 ‘어린 대나무로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하였고 ‘床’에 대해서는 석명을 인용하여 ‘사람이 앉았다 누웠다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주해천자문은 ‘筍’을 ‘輿’, 즉 ‘수레나 가마’로, ‘床’을 ‘코끼리뼈로 꾸민 자리’로 파악하고 있다.

위의 두 예의 경우 해당 구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차이를 나타내는 예들이다. 이러한 예는 위의 두 구를 포함하여 7예가 있다. 나머지 5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79) 存以甘棠

<주해> 周召公奭, 在南國之日, 止舍於甘棠之下, 南國之人, 無不從其教化焉

→ (소공이) 감당나무 (아래)에 머무니
 <석의> 存留也, 甘棠木名, 草木疏云, 今棠梨也…亦如召公之去南國, 而人思慕之, 留所止之樹, 而不伐, 愈歌詠於無窮夜
 → 감당나무를 남겨두어

(108) 樓觀飛驚
 <석의> 樓說文云, 重屋也, 爾雅云, 觀謂之闕, 釋名云, 觀者於上觀望也, 皆屋之最高者也, 飛鳥飛也, 詩小雅云, 如翬斯飛, 驚駭也, 言樓觀之高, 勢若飛然, 而駭人之目也
 → 누관은 (새가) 나는 듯하여 (사람을) 놀라게 한다.
 <주해> 憑眺謂之樓, 延覽謂之觀, 飛驚翬革之貌
 → 누관은 새가 움직이는 듯한 모양이다.

(131) 策功茂實
 <석의> 策謀劃也, 說文云, 以勞定國曰功, 茂盛也, 實者對名而言, 謂實有其功也
 → 공훈을 모획하여(헤아려) 내실을 성하게 한다.
 <주해> 紀績曰策功, 茂實懋實也, 功懋懋賞之意
 → 공을 기록하여 내실을 성하게 한다.

(245) 束帶矜莊
 <석의> 束繫也, 帶說文云, 紳也, 矜者持守之嚴, 莊者容貌之端
 → 띠를 묶고 (조정에) 있을 때에는 단정하고 엄숙하게 하고
 <주해> 束帶立於朝, 當矜持莊敬, 不可懈也
 → 띠를 묶고 (조정에) 있을 때에는 긍지를 가지고 공경하고

(246) 徘徊瞻眺
 <석의> 徘徊彷徨不進之貌, 瞻仰視也, 眺望也
 → 배회하며 위로 보고 둘러본다.
 <주해> 莊有素, 則徘徊之間, 可以聳動瞻眺, 詩曰, 民具爾瞻, 是也
 → 배회할 때에 (백성들이) 우러러본다.

IV. 맺는 말

본고는 먼저 한국의 천자문 학습과 간행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천자문을

4자 1구의 운문으로 파악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 의도에서 주해천자문이라는 주석서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책이 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후 주해천자문의 한문주를 중국 청나라에 간행된 천자문석의의 주석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양자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250구 중 13구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주해천자문의 한문주가 석의와 95% 정도 내용적으로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미영(2015d)를 통해 주천자문과 석의를 비교한 결과 25구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그에 비해 약 5% 정도 적은 수치이다. 주천자문과 석의가 만들어진 시대적 간격에 비해 석의와 주해천자문은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진 만큼 석의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내용적인 유사성을 담보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해천자문의 한문주는 주천자문과 석의의 주석에 비해 내용이 길지 않으므로 주천자문과 석의를 비교하는 것에 비해 그 범위와 내용의 접근에 있어 한계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본고의 고찰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주해천자문의 한문주와 한글어의의 관계 등 주해천자문의 국어사 자료로서의 성격을 고찰해 가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문정(2016), 『주해천자문의 훈에 대한 일고찰-천자문 주석서를 바탕으로』, 가톨릭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19-35.
- 朴秉喆(2005), 「『註解 千字文』과 複數字釋」, 『語文研究』 33, 韓國語文教育研究會, pp.7-31
- 朴秉喆(2007), 「四體 『千字文』 과 文脈之釋의 反映에 관한 研究」, 『國語學』 49, 국어학회, pp.253-276.
- 朴秉喆(2008), 「<千字文>에 나오는 漢字의 訓에 관한 研究-문맥의 意味와 달리 나타나는 訓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5, 국어국문학회, pp.101-128.
- 朴秉喆(2013), 「한국의 『四體千字文』 과 일본의 『三體千字文』 비교 연구」, 국어국문학163, 국어국문학회, pp.133-162.
- 朴秉喆(2016), 『한자의 새김과 千字文』, 태학사, pp.144-148.

- 成百曉(2013), 『懸吐完譯 註解千字文』, 傳統文化硏究會(초판1992), pp.15-139.
- 孫熙河(2011), 「石峰千字文 板本 硏究」, 『한중인문학硏구』 33, 한중인문학회, pp.185-206.
- 安美璟(2005), 『千字文 刊印本 硏究』(초판1쇄 2004년), 이회, pp.19-239.
- 안병희(1982), 「천자문의 계통」, 『정신문화』 5, 한국학중앙硏究원, pp.145-161.
- 오미영(2001), 「일본의 論語訓讀과 中國側注釋書의 관련-論語集解本과 論語集注本の 比較를 통하여-」, 『日語日文學硏究』 39, 韓國日語日文學會, pp.277-294.
- 오미영(2014a), 「15세기 일본의 천자문 학습-東京大學 國語硏究室 소장 『註千字文』을 대상으로」, 『日語日文學硏究』 89-1, 韓國日語日文學會, pp.147-166.
- 오미영(2014b), 「千字文의 受容과 텍스트에 관한 韓日比較硏究」, 『日本硏究』 60, 韓國外國語大學校 日本硏究所, pp.405-421.
- 오미영(2015a), 「일본 천자문 학습의 변천-上野本·東大本·谷村本을 대상으로-」, 『日語日文學硏究』 92-1, 韓國日語日文學會, pp.114-131.
- 오미영·정문호(2015b), 「京都 陽明文庫 所藏 『千字文音決』에 대하여」, 『일본硏구』 64, pp.335-356.
- 오미영(2015c), 「천자문 주석서를 통한 석봉천자문 훈의 검토」, 『구결硏구』 35, pp.239-265.
- 오미영(2015d), 「일본 東洋文庫 소장 『論語集解』(二Ca4)에 나타난 한문훈독의 오류 고찰」, 『일본언어문화』 32, pp.181-197.
- 오미영(2016a), 「日本 東京大 國語硏究室 소장 『註千字文』 훈독의 내용적 고찰」, 『일어일문학硏구』 96-1, pp.87-106.
- 오미영(2016b), 「日本 南北朝時代 千字文 訓讀 硏究-內閣文庫 『千字文古注』(漢8663/別49-5)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硏구』99-1, pp.145-164.
- 오미영(2016c), 「日本 東洋文庫 소장 古活字板 『注千字文』(三Ae17)의 문젠요미 고찰」, 『일본硏구』 70, pp.257-276.
- 李基文(1972a), 「漢字의 釋에 관한 硏究」, 『東亞文化』 11, 서울대학교 동아시아硏究소, pp.231-269.
- 李基文(1972b), 「石峰千字文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5, 국어국문학회,

pp.395-402.

- 李基文(1981), 「千字文 研究(1)」, 『韓國文化』 2,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pp.1-17.
- 李忠九(2012), 『教授用 指導書 註解千字文』, 傳統文化研究會(초판 2010), pp.5-267.
- 林東錫(2009), 「『千字文』의 源流, 內容 및 韓國에서의 發展 상황 考察」, 『중국어문학회논집』 56, 중국어문학연구회, pp.281-304.
- 崔鶴根(1980), 「‘千字文’에 대해서」, 『국어국문학』 83, 국어국문학회, pp.215-219.
- 崔範勳(1975), 「‘千字文’의 字釋放」, 『國語國文學論文集』 9·10,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pp.197-221.
- 崔範勳(1983), 「『註解千字文』의 複數字釋에 대하여」, 『國語國文學論文集』 12,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부, pp.19-42.
- 木田章義(1997), 「文庫版によせて」, 『千字文(岩波文庫33-20-1)』, 岩波書店, pp.427-442.
- 尾形裕康(1966), 『我國における千字文の教育史的研究』, 校倉書房, pp.1-342.
- 山崎誠(1983), 「本邦旧伝注千字文攷」, 『平安文學研究』 69, pp.23-34.
- 小川環樹(1997), 「千字文について」, 『千字文(岩波文庫33-20-1)』, 岩波書店, pp.385-425(초판1984).
- 藤本幸夫(1980), 「조선판 천자문의 계통」, 『조선학보』 94, pp.63-117.
- 李孝善(2013), 「韓國『千字文』書誌」, 『京都大學歷史文化社會論講座紀要』 10, 京都大學歷史文化社會論講座, pp.33-55.

<Abstract>

『註解千字文』の漢文注考察

呉美寧(Oh Miyoung)・金紋廷(Kim Munjeong)

註解千字文は、千字文を4字1句の韻文としてとらえ、各句の意味を理解しようとする目的から作られた、注釈書としての正確をもつ書物である。本稿ではまず、韓国の千字文の学習と刊行について歴史的な記録をもとに考察し、その後、註解千字文の漢文注を、中国の清代に作成された千字文注釈書である千字文積義の注釈と比較を行った。

その結果、両者が相違を示すのは250句のうち13句が確認された。つまり、註解千字文の漢文注は、積義の注釈と約95%の句において内容的に一致しているのである。呉美寧(2015d)で考察した注千字文と積義を比較において、25句が相違を示していたが、それに比べ約5%ほど少ない数値である。注千字文と積義が作られた時代的隔たりに比べ、積義と註解千字文は近接しているだけに、註解千字文の作成に積義を参照した可能性も考えられる。しかし、何より註解千字文の漢文注は量的にたいへん少ないため、注千字文と積義の比較の場合より、比較に限界があることは否定できない。

KeyWords : 註解千字文, 漢文注, 千字文, 注釈書, 千字文積義